

10 스포츠

핸드볼부 대학선수권 준우승 10월 전국체전 좋은 성적 다짐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핸드볼부가 경상남도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대학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핸드볼부는 지난 9일 원광대와 결승전에선 대회 3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합계 스코어 36-39로 패했다. 핸드볼부는 대회 조별리그에서 강원대전 34-35로 패배, 조선대전 48-27로 승리한 뒤 4강에선 라이벌 한국체대를 22-21로 꺾었다.

결승전에서 핸드볼부는 전반은 24-19로 앞섰지만, 후반에 12-20

으로 8점을 뒤지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특히, 후반에 5연속 실점을 하는 등 후반 15분까지 4-12로 상대에게 경기 흐름을 내줬던 것이 패인이었다.

라이트백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어 "항상 우승을 해와서 방심했던 것 같다"며 "패배 이후에는 배우는 게 있으니, 이 아쉬움이 다음 대회에선 간절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팀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나 선수는 "개인상을 받았지만 솔직히

기쁘지 않다"며 "입학 이후 가장 아쉬운 대회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점수 차가 커도 충분히 역전당할 수 있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핸드볼부는 오는 10월에 실업팀과 대학팀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부산으로 떠난다. 선수들이 이전부터 "실업팀에 1승을 하는 게 큰 목표"라고 입을 모아 온 만큼 실업팀과의 경기는 또 다른 도전이다. 이 선수는 "그 목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준비한 모든 것을 쏟기 위해 마음가짐부터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새내기 'BMX 레이서'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 목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BMX 선수 김어진 (스포츠지도학 2025)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 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 BMX 레이싱 국가대표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새내기 김어진(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를 만났다.



김 선수는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어진 선수 제공)

가 큰 부담이라고 한다.

성적 부담은 언제나 스트레스다. 김 선수는 "1등을 위해 운동하는데, 겨우 3등을 하거나 경기 중에 넘어져서 속상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격렬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 역시 크다.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오른쪽 팔에 금이 갔었고, 왼쪽 팔은 부러졌었다"며 "부상 직후엔 그 장면이 떠올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김 선수는 매주 자전거에 오른다. 그는 "금메달을 따면 너무 짜릿하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못하던 기술을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우승한 순간이 얼마나 기쁘지 묻자, 그는 "시험에서 다 찍었는데도 100점 받은 기분과 같다"며 웃었다.

목표는 '2026 아시안게임' 은퇴 후엔 선수 양성이 꿈

국가대표는 한 해 동안 3번의 평가전을 한 뒤, 성적을 합산해 2명이 선발된다. 평가전에선 타임 트라이얼(혼자 달려 트랙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과 레이싱 경기를 치른다. 김 선수는 지난달 31일 양양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서 2위를 했지만, 합산 3위로 국가대표가 되진 못했다. 다만 중요한 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내년 평가전이라고 한다. 김 선수는 "내년에 열리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계속 1위를 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선수는 "은퇴 후에 코치 일은 꼭 해보고 싶다"며 "지금 팀에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가르쳐 보면 꽤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키운 선수가 메달을 따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BMX가 유명해지려면 스타가 등장해야 한다"고 말한 그가 BMX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길 바란다.

자전거로 휴 위 질주 'BMX 레이싱' 국대 평가전 1위로 우리학교 입학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종목 'BMX (Bicycle Motocross) 레이싱'은 트랙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기로, 여러 언덕과 급회전 코너를 주행해 순위를 매긴다. 30~40초 만에 경기가 끝나는 짧고 강렬한 종목이다. 김 선수는 "속도를 위해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하나뿐이지만 그 조차도 거의 쓸 일이 없다"고 한다.

김 선수는 1학년이지만 BMX 경력은 무려 10년이다. 그는 초등학교 때 친구와 놀며 BMX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때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깐 이것만큼 재밌는 종목이 없었다"며 "성인 선수 시합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 꿈이 커졌다"고 회상했다.

BMX 선수가 갈 수 있는 국내대학은 우리학교와 한국체대뿐이다. 여러 수상 실적 중 특히 '2023 KCF YOUTH CUP', '2023 양양 전국선수권대회', '2024 국가대표 평가전 1차 타임 트라이얼'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내 훈련장 세 곳 열악한 환경 스트레스와 부상에도 꾸준한 노력

우리나라는 BMX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실업팀이 없고, 훈련장은 전국에 세 곳(강원도 양양, 인천 강화도, 세종시)뿐이다. 김 선수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부터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리더십, 체력, 해외연수 등 육각형 인재의 완성

모집기간

: 2025. 9. 1(월) ~ 2025. 10.14(화)

모집대상

: 남녀 1, 2학년 재학생

지원방법

: acq.armyofficer.mil.kr

문의

: 경희대 학군단 02) 961-0085~6

모바일홍보



지원서접수

